

젊음을 불살랐던 「新太陽」 시절

내 청춘의 황금시절... 文壇 데뷔에 밑거름돼

洪性裕

소설가

피난지 大邱에서 '민완기자'로

고이 상아탑에 문혀 문학수업을 아울러 하던 법학도 시절. 서울 법대 3학년에 진학한 이른 여름 일요일, 날벼락처럼 후려치며 떨어 진 것이 6.25였다.

이제 법률이고 문학이고가 없게 되었다. 이제까지 지니고 있던 가치관이나 도덕률도 송두리째 무너지고 원대한 희망도 꿈도 사라지고 말았다.

6.25 적치하의 고난과 신산을 무엇이라 표현 하면 좋을까. 그저 젊다는 이유 하나만을 이유로 죽음을 피해 쫓겨다녀야 했지만, 대학시절 「서울대학신문」을 편집했다는 죄값으로 '일급 반동분자'라는 낙인이 찍혀 지명수배를 받은 것 이상으로 몰려야만 했다. 죽지 않고 살아 남은 것이 기적이라 할 밖에 없었다.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짓밟혔던 서울은 수복되었고, 38선을 돌파한 진격으로 통일이 가능할 듯한 희망이 보이는 듯하였고, 젊은 나에게도 보람찬 내일이 다시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희망과 기대를 앗아간 것이 중공군의 개입이었고, 이 때문에 서울은 다시 적군에 짓밟혀 서울을 버리고 피난길의 남하를 하게 되었다. 부산까지의 탈출에 성공한 나는 또다시 젊음을 잃은 암담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징병 적령기에 해당했던 나는 언제 소모품이라 할 젊은 육신을 전선에 내던져야 할지 모르는 판국이기도 했지만, 이에 전전긍긍하기에 앞서 아침밥을 먹으면 짐심 걱정을 해야 했고, 요해 저녁밥을 들고 나면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불쌍한 떠돌이 신세여만 했다.

하는 수 없이 살길을 찾아 대구로 올라왔다. 대구에서 누가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막연한대로 대구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법무장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응시해 볼 작정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법무장교에 응시도 하기 전에 다른 고마운 손길이 뻗친 것이다. 그것은 헌병사령부에서 기관지 「사정보」를 발행하려는데 민완기자를 찾는다는 것이다.

헌병사령부라고 하면 전시하에서는 다시 없는 '권력기관'인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권력 기관에 '민완기자'로서 채용이 된 것이다. 다른 지면에 이미 밝힌 일이 있지만 그것은故 朴寅煥 시인의 주선으로써였다.

적치하에서는 일급 반동분자로 낙인을 찍게

월간 「新太陽」은 1952년 피난지

대구에서 창간됐다. 비록

대중잡지라고는 하지만 피난시절에

감히 월간지의 발간을 단행했다는 것은

우리 잡지사상 획기적인 일이었다.

탁월한 영업수완으로 「신태양」을

궤도에 올려놓은 황사장은 그후

「실화」「女像」「명랑」「소설공원」등

월간지를 잇달아 창간했다.

한 「서울대학신문」을 편집했다는 그 몹이, 이제는 군부의 권위있는 기관지에 몸을 담게 한 것이다.

잡지의 황무지... 軍잡지의 독무대

한갓 군부의 기관지를 편집한다는 것이 뭐 대수로운 일이나고 얼핏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다. 군복을 입지 못하면 행세를 하지 못했던 그 시절, 더군다나 징병적령기에 징병기피자란 오명을 쓰는 일 없이 후방에서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은, 비속한 표현으로 땀을 잡아도 장땀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뿐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당시 언론기관이라고 하면, 현지의 지방지 하나 둘과 피난은 서울의 중앙지가 체면처럼 타블로이드판 2면짜리를 간신히 발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 이외에 일체의 월간지, 주간지도 발행되는 것이 없었다. 있다는 것이 육군본부나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軍紙·誌와 공군본부에서 발행한 내가 편집한 「사정보」 뿐이었다.

이는 또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문인이 원고료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과 매체 역시 앞서 열거한 군기관지 뿐이라는 것을 뜻한다.

나는 물론 문단에 데뷔하기 이전인 학생신분이었으나, 이미 이때 문단 선배들을 가까이 모시고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권력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넉넉한 기관이었으므로, 가난하고 불우한 문인들에게 원고료를 가볼·선불로 듬뿍 드렸다.

군복을 착용치 못하면 행세를 하지 못한다면 그 시절에 군복착용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헌병에게 착용증을 빼앗기면 찾아 주



1950년대 초, 시골에 있는 필자의 큰댁에 놀러갔을 때의 黃俊性 사장(왼쪽 끝), 담배를 문 채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오른쪽 끝이 당시 主幹이었던 소설가 柳周鉉씨, 그 바로 옆 베틀이 맨 이가 필자다.

도 했다.

그 시절부터 술을 배우기 시작했으나 대구로 피난은 문사치고 내 술을 먹지 않았다는 분은 없을 것이다. 타지에서 대구로 오는 문사에의 여관 알선, 술대접은 으레껏 내가 도맡았다. 그러니 선배문인들로부터의 인기(?)는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 개인으로서도 체형적 수확이 적지 않았다.

우선 많은 문인선배들과 문단에 등단하기도 전에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후일 문단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나 잡지 편집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헌병사령부에 몸담고 있음으로써 155마일 전선 어디라 할 것없이 가보지 않은데가 없었고, 포포수용소, 육군형무소, 야전병원 등등 군에 몸담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체험을 했으며, 심지어 공식·비공식 사형집행장까지 입회하였다.

이러한 체험이 후일 「비극은 없다」, 「비극은 있다」 등의 일련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집필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헌병사령부에서 필경에는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경위까지 소상하게 밝힐 필요까지 없겠지만, 나의 행로에 대해 다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피난지 대구에서 별안간 실적이 되었기 때문에 갖는 고민이 아니었다. 내가 「사정보」를 그만두었다고 하니가 그 시절에 서너군데서 스카웃의 손길이 뻗쳐 왔던 것이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한창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 잘하는

'민완기자'임에 분명했으니까.

월간 「新太陽」 창간되다

그 무렵이었다. 부산에서 「希望」이, 대구에서 「新太陽」이라는 두 민간 대중잡지가 전후 최초로 창간을 본 것이다. 비록 대중잡지라고는 하지만 피난시절에 감히 월간지의 발간을 단행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로 우리 잡지사에게 길이 남을 만한 일일 것이다.

바로 그 양대 잡지의 하나인 「新太陽」에서 역시 스카웃의 손길이 뻗쳐 온 것이다.

아직 휴전 직전의 일이어서 아무래도 군대 쪽에 몸담고 있는 편이 좋을듯 싶었으나, 그리고 실제로 육군쪽과 공군쪽 잡지에서 스카웃의 손길이 뻗쳤으나, 장차 휴전이 성립된 연후의 앞길을 생각하고 용단을 내려 「新太陽」을 선택기로 했다.

그러나 입사하자마자, 솔직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무실은 피난살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책상 4개 뿐으로 딱 찰만큼 비좁았다.

사원은 사장 黃俊性, 편집장 柳周鉉, 수석기자(?)에 나와 尹모라는 여기자에다 사환이 하나, 그것이 전사원이었다.

사원이 단출했다 해서 실망한 것이 아니었다. 실은 입에 올리기에 도 부끄러울만큼 박봉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월급으로 어떻게 한달을 살아가라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첫달치 월급봉투의 내용을 살펴보고 솔직히 눈앞이 캄캄했다. 아마 내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했을 것이다. 편집장 柳周鉉선생이



이땅의 대중잡지의 선구였던 월간 「新太陽」 창간 2주년 기념호(1954. 8). 「신태양」은 52년 8월 피난지 대구에서 黃俊性씨에 의해 창간됐다.

무엇인가 위로의 말을 했으나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염치불구하고 털어놓지만, 당시 묘령의 고마운 여인이 주변에 생겨, 그 그녀의 도움이 아니었다들 도저히 배겨나지를 못했을 것이다. 양복도 그녀가 마련해 주어서 몸에 걸칠 수는 있었으나 구두 한켠째 사신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양복차림에 고무신을 신는 꼬락서니로 출근을 했다.

그러나 일만은 잘했다. 잘했다 할 정도가 아니라, 혼자서 도맡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위로 편집장 柳周鉉선생이 있었지만, 편집상의 큰 테두리만 정해 주셨을 뿐, 편집·취재·원고청탁·교정 등등 남에게 미룰 것이 없이 혼자서 앞장서서 해냈다. 편집장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여기자가 게을러서도 아니다. 그것은 나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맡은 일을 남에게 돌릴 수 없는 책임감이라고나 할까.

탁월한 경영수완으로 日就月將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발행된 잡지는 黃俊性 사장 자신의 부지런함과 탁월한 영업수완으로 해서 자못 큰 호평을 받았다.

가난한 피난살이였지만 이렇다할 읽을거리가 없었던 시절,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청량제 구슬을 한 것이 분명했다.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었던가는 지금 기억에 없지만 짝짝한 재미를 본 것이 틀림없었다. 잡지를 발행하는 한편 간간이 단행본도 출간했을 뿐더러, 휴전이 성립된 서울환도 직전 또한 나의 월간지 「實話」를 창간하기에 이르렀다.

「실화」지의 창간호 편집도 柳周鉉선생의 도움을 받으며 나 자신이 편집을 했지만, 이 또한 커다란 반응을 얻었다.

「실화」가 창간되자마자 정부가 서울로 귀환하게 되어, 신태양사도 환도케 되었다. 나는 잡지사의 이삿짐과 함께 전 사원, 그레야 사장과 편집장과 나, 단 세사람이 같은 차편으로 상경을 하였다. 사무실은 세종로, 현재의 현대빌딩 뒤편 큰 길가에 얻었다.

환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서울은 문자 그대로의 폐허였다. 그 폐허 속에서 두개의 잡지를 속간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었다. 우선 인쇄시설이 여의치 않았다. 반반한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인쇄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돈암동 거리에 있는 이름도 잊어버린 어떤 허름한 인쇄소에서 조판을 했다. 조판시설도 엉성하고, 공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뒤를 대지도 못했다. 하도 답답한 나는 직접 植字까지 해야 할 판국이였다.

나 뿐만이 아니라 전 사원들이 그처럼 열심히 일할 수가 없었다. 이때는 전 사원수가 10명이 넘을만큼 방대(?)해졌지만.

이런 곤욕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잡지는 내놓기만 하면 날개 돋친듯 팔려 나갔다. 일반적인 단행본은 초판 3천부를 찍었고, 재판만 찍어도 베스트셀러가 된 시절에 「신태양」도 「실화」도 3만부, 4만부가 팔려 나갔다.

세종로에서 덕수궁 맞은편 큰 길가의 3층 건물로 이사했을 당시는 양대지가 8만부 안팎을 오르내리며 10만부를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절 柳周鉉선생은 편집장에서 主幹으로 올라 앉으시고, 나는 「신태양」 편집장을 거쳐, 黃사장이 새로 창간한 「明朗」지 편집장으로 옮겨 앉았다. 「女像」까지 합쳐 잡지가 자그마치 4개가 된 것이다. 아니, 몇호를 내놓지 못하고 단명으로 그쳤지만 「소설공원」까지 합쳐 5개 월간지와 수많은 단행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잡지 편집자에서 作家로

바로 「명랑」 편집장으로 있었던 시절, 나로서는 잊을 수 없는 「비극은 없다」가 한국일보 창간 3주년 기념사업으로 모집한 장편소설에 당선하여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를 했다.

한국일보에 당선이 된 연후에도, 즉 소설이

신문에 연재되는 동안은 「명랑」지 편집장 자리를 지키고 앉았다.

그러나 연재가 끝난지 얼마 후, 신태양사에 사직원을 냈다. 새로운 신문연재소설을 위해서 각종 잡지가 속출해서 원고집필만으로도 생활을 꾸려갈 수 있을 것만 같아서였다.

이리하여 10여년 동안 나의 청춘을 불살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든 신태양사를 그만둔 것이다.

한달치 봉급 정도밖에 안되는 퇴직금을 손에 쥐고 물러나오면서 정말 눈물이라도 뿌릴 것처럼 서운했다.

나 자신의 과거에 후회는 없지만,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만약 신태양사

아닌 다른 곳, 다른 분야에서 똑같은 정열을 쏟았다더라면 또다른 인생이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본다.

그러나 신태양사에 머물러 있는 동안 비교적 화려하게 문단에 데뷔할 수 있었고, 반백이 된 아직까지도 현역작가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도 신태양시절이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처지다.

나의 청춘의 황금시절이었고, 또한 신태양사가 전성기였던 시절의 黃俊性사장도 柳周鉉선생도 모두 고인이 되셨으니 만감이 교차되면서 그저 두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보는 것이다.

잡지 황무지 개척한 故 黃俊性사장 新太陽社 창업...40여년간 출판문화 발전에 공헌

신태양사의 창업자 黃俊性사장이 지난 6월1일 幽明을 달리했다. 향년 67세. 그는 해방직후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출판계에 투신, 최근에 이르기까지 40년 남짓을 출판의 외길을 걸어왔다.

그가 출판업에 투신한 것은 1947년경. 해방전에 일본대학 전문부 문과를 마치고 나고야(名古屋) 인쇄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이해에 계몽동지사와 조선음악출판사를 서울 충무로 2가에 차렸다.

6·25 동란을 맞으면서 조선산업신문사에도 관계했던 그는 그후 피난지 대구에서 신태양사를 창업, 월간 「신태양」을 창간했고, 환도후에는 「신태양」지와 함께 「실화」「명랑」「女像」「소설공원」 등 월간지를 발행하며 단행본 출판에도 힘을 기울였다. 생전에 고인과 가까이 지냈던 一潮閣의 韓萬年사장은 그무렵의 黃사장을 회고하며 “잡지를 통해 대중문화 발전에 끼친 공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한다. 또 잡지평론가 高廷基씨는 “「신태양」誌는 종합잡지이면서도 재미있는 취미기사와 읽을거리를 많이 실어 종래의 딱딱한 종합잡지에 식상했던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면서 “잡지의 대중화를 지양한 이 잡지는 어느 의미



故 黃俊性사장

에서 우리나라 대중오락잡지 발간의 도화선 구실을 했다”고 평가했다.

신태양사는 환도후 태평로 덕수궁 건너편에 사옥을 마련, 전성기를 누렸다. 그후 茶洞·積善洞·東崇洞시대로 이어졌는데, 적선동 시대 이후는 잡지에서 손을 떼고 단행본과 전집 출판으로 명맥을 이었다. 만년에는 건강타인지 출판업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작년에는 그의 평생의 과업이었던 신태양사를 남의 손에 넘겼다.

많은 출판인들은 그의 때 이른 죽음을 애석해하며, 그의 생전의 개척자적인 발자취를 기리고 있다. 서양화가 黃珠里씨는 그의 고명 딸이다.